

인도네시아의 섬유 산업

- 내수 호조로 5년간의 황금기의 전략 수정 <3/3>

◎ 품질 향상시키고, 효율도 잘 관리

최저 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고, 전기 요금이나 외환 레이트(外換 rate)의 변동 등 인도네시아 섬유 공장의 경영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움직임은 모두가 다르다. 그러나 섬유 선진국으로부터 진출해온 기업으로서 바뀔 수 없는 방침은 역시 품질 향상이다. 단순한 가격 승부에는 이기기 어렵다.

시키보 그룹의 멜텍스는 방적 공정에서 넵(nep)·슬럽(slub)을 검출하는 장치 이들을 제거하는 장치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효율을 올리기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시키보의 사장에 따르면 200대의 직기 중에서 79대까지는 광폭화로 갱신하였는데 이를 9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스쿨 유니폼(school uniform)용으로 폴리에스터·면 혼직물(polyester·綿 混織物) 208본(本 : 經·緯絲數)이 사용되고 있다. 같은 직물의 옥스퍼드 등 정번적인 상품에서도 고품질로 시세가 오르는 견조(堅調)한 판매를 볼 수 있다. 워킹 유니폼(working uniform)에서의 면고율 혼(綿高率混)이나 커버링사(covering 絲) 사용 등 차별화 텍스타일(差別化 textile)도 늘고 있다. 특히 기발한 특화 상품은 없으나 고품질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텍스타일을 공급해 주고 있다.

렌징 그룹(Lenzing group)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사우스 퍼시픽 비스코스(South Pacific Viscose)는 레이온 단섬유(rayon 短纖維) 설비를 늘리고 있다. 수요도 늘고 있으며 업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제 4계열의 도입도 결정하였다. 연산(年産) 6만 톤이 부가되어 생산 능력이 22만 톤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2010년 시점에서는 21만 톤 규모로 인도네시아 공장이 오스트리아 본사 공장(Austria 本社 工場)의 25만 5,000 톤 다음가는 규모가 된다. 이 회사의 매출 규모는 앞으로 수년 정

도 지나면 4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도카이 센코 그룹(東海 染工 group)의 인도네시아 공장인 도카이 텍스프린트(Texprint) 인도네시아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내수를 배경으로 프린트 가공이 크게 늘고 있다. “너무 주문이 많아서 바쁘다 보니 주문을 다 받을 수가 없다.”고 이 회사 사장은 즐거운 비명을 울리고 있다.

일본 국내 염색 가공 공장은 수주가 적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본래 토요일에는 만나질 조업하고 있는데, 평일 수준으로 생산 시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수주를 받고 있다. 역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프린트 가공이 가능한 공장인 만큼 이와 같은 토요일 추가 조업의 조건으로 주문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말하는 5년간의 황금기가 정말로 올 것인가? 그것은 각 기업들의 분투노력(奮闘努力) 여하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